

특별취재

정부 카보타지 정책 적용 반발

익산시, 시청·읍면동 산하기관 노후 네트워크 장비 전면 교체

익산시는 지난 5월부터 한 달여간 걸쳐 시청과 읍면동 산하기관에 설치되어있는 네트워크 장비 중 암호화 장비를 전면 교체했다.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은 잦은 장애 발생으로 민원 업무 처리에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또한 단종 된 시스템으로 고장 발생 시 수리가 불가능했다.

이번에 설치한 신규 암호화장비는 기존 10M(메가)급 장비보다 100배 빠른 1G(기가)급 모듈을 탑재해 한층 더 빠른 서비스와 강화된 보안으로 안정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명희 교육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청사 내 카페시설 운영 위탁기관 7월까지 공개모집

군산시는 시청 청사 내 카페시설을 오는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군산시에 소재하며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로 군산시청 복지지원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위탁 운영자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의 공신력, 재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 일정한 심의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청사 내 카페 시설 운영은 바리스타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휴게공간을 제공해 장애에 대한 편견해소와 시 이미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금강살리기 캠페인 전개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단장 박종만)은 14일 금강하구 대청소 및 금강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시, 서천군, 금강사업단 직원 및 주민 500여명이 참여했다. 군산시와 서천군의 연계통로인 금강하구둑은 해마다 상류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가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관광지 주변 경관을 흐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강사업단은 금강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매년 6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 금강살리기 캠페인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금강하구둑 관광지 인근에서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하고 금강하구둑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을 상대로 '쓰레기 무단투척 금지', '생활쓰레기 되찾고 가기', '담배꽂초 버리지 않기' 등 대한민국 문화시민으로서 금강살리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군산=문정곤 기자

비응항늪시 대학생 바다에 빠져 사망

군산시 비응항에서 낚시를 하던 대학생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경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4시 35분께 군산시 비응항 부두에서 바다에 빠진 A씨(26세·경기)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B씨는 "일행들과 함께 14일 새벽 비응항에 도착해 부두에서 낚시를 즐기던 중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A씨가 바다에 빠진 것 같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122구조대를 비롯해 인근에 있던 순찰용 선박을 출동시켜 신고접수 후 04시 54분께 현장에 도착, 수중 수색활동에 임해 익수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향운노조·군산항 관계자들 "광양항 물량 몰아주기 즉각 철회" 촉구

정부가 카보타지(cabotage)정책을 적용, 전남 광양항을 중심으로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산항 관계자들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전국향운노조조합연맹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포함한 군산항 관계자들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불합리한 카보타지 시행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항만간 경쟁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자동차 환적 허브화 계획으로 광양항을 제외한 국내항간 카보타지 시행계획을 수립, 군산항이 환적항으로서 기능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자동차취급 항만과 사전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특정항만으로 물량 몰아주기식의 카보타지를 시행하려한다"면서 "이런 경우 현재

환적항으로 물류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산항 하역근로자들과 수많은 관련업체의 파산은 너무도 자명, 매우 불행한 사태를 초래 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카보타지 허용대상이 국적선사로 한정될 경우 외국선사는 국내항만에서 환적차량 자체를 취급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내일자리 파괴와 더불어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주요 항만들이 경쟁적으로 환적화물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를 환적화물이 일반 수출입화물에 비해 하역작업을 두 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한번 뿐인 수출입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고 지역의 경제규모나 경제상황의 영향을 덜 받는 이점이 있다.

군산항의 자동차 화물 취급량은 지난 2014년 16만4000대, 지난해 23만4000대로 증가했으며 이는 군산항 전체 수출화물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군산항은 자동차환적화물의 유치를 위해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5만㎡에 이르는 야적장을 조성, 오는 10월부터 운영계획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 군산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환적화물의 취급이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카보타지란 국가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법 제6조에서 국내항간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의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일 군산시청에서 신촌마을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군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최학근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군산 신촌마을 군장산단 철도공사 민원 해결

권익위 현장조사·관계기관 협의 거쳐 '성토구간 교량화' 조정안 최종 확정

군장국가산단 진입 철도공사로 인한 신관동 신촌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산시는 군장국가산단으로 진입하는 철도공사로 인해 신관동 신촌마을이 양분되고 침수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촌마을은 전체 76가구, 178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지난 1994년 국도21호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의 북측에 34가구, 남측에 42가구가 양분됐으며 각종 소음·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입어왔다.

여기에 지난 2012년부터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군장국가산단 진입철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도로의 남측에 있는 42가구 중 철도공사에 편입되는 5가구는 철거됐고, 철도의 북측에 15가구 남측에 22가구가 양분되어 마을이 고립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지난 3월 마을주민들은 철도선 성토구간을 교량화로 변경하고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군산시와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일 군

산시청에서 신촌마을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군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최학근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철도노선 중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성토구간(약 150m)의 교량화하고, 군산시는 성토구간을 교량화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 올해 7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하기로 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신촌마을 주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권익위와 국토부, 철도시설공단과 특히 이해와 양보로 조정안을 수용한 신촌마을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5개 금융기관과 산업단지 분양대금 대출협약 체결

익산시는 14일 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분양대금 대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현을 시장, 조규대 시의장, 한상욱 기업은행 익산지점장, 송기우 농협은행 익산지점장, 이동기 산업은행 전주지점장, 김태운 우리은행 익산지점장, 양모 전북은행 익산금융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 농협은

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등은 산업단지 분양대금의 20%를 납부한 기업에 대해 중도금 80%를 대출하게 된다. 이 같은 금융지원은 익산시 산업단지 분양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최대현안 사업인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유치를 위해 더 나은 투자 여건 조성에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오늘의 금융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익산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유

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한 제도개편으로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기업유치 유공 시민에게 분양대금의 0.3%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업유치 모니터링을 통해 타 지자체보다 월등한 투자여건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귀금속 우수제조업체 선정 (주)엔트리주얼리 인증현판 수여

미국·영국 등 해외 각국 금·은 제품 수출전문기업

익산시는 14일 익산시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로 선정된 (주)엔트리주얼리(대표:이병훈)에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와 함께 각종 매체 홍보,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 홍보책자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수여식에서 (주)엔트리주얼리 이병훈 대표는 "익산시 귀금속보석 우수제조 업체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익산시의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보석도시 익산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우수제조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지역 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주)엔트리주얼리 이병훈 대표는 "익산시 귀금속보석 우수제조 업체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익산시의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보석도시 익산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주)엔트리주얼리 이병훈 대표는 "익산시 귀금속보석 우수제조 업체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익산시의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보석도시 익산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우수제조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지역 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발의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 제194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시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은 익산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될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익산시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마련과 공용자전거 설치 및 운영,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고 있으며, 회기 중 조례안이 의결되면 익산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및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으로 많은 익산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이용하

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이 김충영 의원은 수년째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 현안을 살피는 의정 활동을 펼쳐 지역주민들로부터 '자전거 의원'이라는 애칭을 얻고 있으며, "평소에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꾸준한 관심과 느껴왔던 불편 사항 등을 조례안에 담자, 우리 시민들이 걱정 없이 자전거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자전거 활성화의 작은 시작 일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이 실행된다면,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대비 합동 현장점검

군산시는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선유도 해수욕장 합동 현장점검을 14일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관광진흥과, 자원순환과, 식품위생과, 교통행정과 등 9개 관련부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점검에서는 레저시설 안전점검, 화장실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 관리, 부담요금 제도 및 불가안정 지도점검, 여형시설 안전점검, 쓰레기 처리, 노상 적치물 정비, 불법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 등을 실시했다.

특히 도서별 위생업소 위생 점검 및

영업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별도의 현장간담회도 실시했다.

시는 점검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 최종 합동점검 이전까지 부서별 대책을 마련해 해수욕장 주변 청소, 각종 편의시설 도색 및 보수, 배사장 평탄작업,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 등 보완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선유도 해수욕장은 오는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삼기초 학생 곡성기차마을 관람

코레일 전북본부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14일 익산시 삼기초등학교 학생 34명을 초청해 곡성기차마을을 관람하는 해피트레인을 운행했다.

평소 기차여행의 기회가 많지 않은 농촌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차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계획된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철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업

무를 담당하는 익산전기사업소 '사랑의 봉사회'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3분 익산역을 출발해 11시 12분 곡성역에 도착해 점심식사 후 증기기관차 체험 및 동물농장 관람 등 곡성기차마을 일대를 관람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모현동 입산부·아이동반 여성 민원창구 운영

익산시가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9개 읍면동중 인구가 가장 많은 모현동 주민센터는 입산부와 아이를 동반한 여성을 위한 전용 민원창구를 이달에 개설, 운영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현동주민센터는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맞춰 거동이 불편한 민사 입산부나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들에게 신속한 민원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센터 내에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했다.

현재 전체 주민 수 4만368명중 여성이 2만764명으로 남성의 1만602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배려가 필요한 입산부와 아이 동반 여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센터 자체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김성도 모현동장은 "익산시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맞게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